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9월 1일
제2016호

주임 신부: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안민철 미카엘

연령 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마르 7,6-8)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다〉, 제임스 티소트

연중 제22주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나해)

제 1 독서 신명 4,1-2.6-8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무엇을 보태서는 안 된다.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화답송 시편 15(14) |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제 2 독서 야고 1,17-18.21-22.27 |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복음 마르 7,1-8.14-15.21-23 |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때에 ¹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려왔다가,
²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³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⁴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⁵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⁶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⁷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⁸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¹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¹⁵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²¹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²²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²³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복음 묵상

오늘 독서와 복음은 모두 들음에 대하여 말하는 듯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실천하면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리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머리로 좋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할 때보다, 하느님께서 이것이 바른길이라고 알려 주시는 것을 따라갈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을 고집하지 않고 하느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온갖 좋은 것은 위에서 온다고 하며, 공손히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공손함, 그것은 신명기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리킬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더 좋고 더 옳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우기지 않고 하느님의 생각에 순응하는 것이 공손함입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느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전통을 바꿀 수 없다고 여기고,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를 남겨 두지 않습니다.

열왕기 상권 3장에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청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듣는 것은 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에게 이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이 더 지혜로움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치하지 않거나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말씀이 더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그 지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안소근 실비아 수녀)

피조물과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15년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하시어 해마다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내기로 하셨습니다. 이날 교회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의미를 묵상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생태계를 보호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피조물과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십시오.’ 2024년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주제인 이 문구는 바오로 성인이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8장 19-25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의 의미를 설명하며, 믿음에서 생겨나는 구원의 확실한 희망,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에 초점을 맞춥니다.

피조물 전체가 이 새로운 탄생의 과정에 동참하여 탄식하며 그 해방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치 ‘큰 나무로 자라는 겨자씨’ 또는 ‘밀가루 반죽 속의 누룩’처럼 보이지 않고 감지할 수 없는 성장 과정이 수반됩니다(마태 13,31-33 참조).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기대되는 결과는 더없이 아름다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탄생, 곧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희망은 환난의 시기나 인간의 악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역경 속에서도 굳건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부끄럽게 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피조물과 그리스도인들과 성령의 탄식은 이미 진행 중인 구원을 미리 맛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오로 성인이 묘사한 그 ‘환난, 역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로마 8,35 참조)을 지금도 계속 감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때 희망은 역사와 인간사를 읽는 대안이 됩니다. 희망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현실성을 지닙니다. 이 희망은 아브라함의 기다림처럼 인내하는 기다림입니다.

피조물과 함께 희망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힘을 모으고 선의의 모든 이와 함께 걷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힘 그리고 그 의미와 한계에 관하여” 다시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은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광적으로 커졌습니다. 우리는 인상적이고 놀라운 기술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되었으며 많은 생명체의 생명과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하느님을 찬미하여라」, 28항). 통제되지 않는 힘은 괴물을 만들어 낸 뒤 우리를 배반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하여 윤리적 한계를 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인공지능의 계산과 시뮬레이션 능력이 평화와 온전한 발전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인류와 자연을 지배하는데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2024년 세계 평화의 날 교황 담화 참조).

피조물과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는 것은 강생의 믿음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들에게 예정된 육신의 부활에 대한 기대를 공유함으로써, 고통을 겪고 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다른 이들의 ‘육신’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영원하신 성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성부의 자녀입니다. 믿음과 세례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로마 8,2 참조). 곧,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거룩한 삶(로마 8,14-17 참조)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갈라 2,20 참조).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삶은 하느님을 위한, 인류를 위한, 피조물과 함께 피조물을 위한 사랑의 노래가 될 수 있고, 거룩함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1 2차 헌금

- 이번 주일은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구역 임원 교육

- 일시 : 9월 1일(일) 오전 11:30 (B-1,2)
- 구역 임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 KoC 월례 회의

- 일시 : 9월 1일(일) 오전 11:30 (B-3)

4 9월 목요 신심 기도회

- 9월 목요 신심 기도회는 9월 5일(월) 교구 설정 50주년 행사 관계로 9월 12일(목)에 저녁 7시에 실시됩니다.
- 감사 : 리치먼드 한인 성당 김택민 마태오 신부
- 신심 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 단체부 회의

- 일시 : 9월 8일(일) 오전 11:30 (A-1,2)

6 꼬미시움 월례 회의

- 일시 : 9월 8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7 병자 영성체

- 일시 : 9월 13일(금)
- 신청 : 정문기 월리엄 (703) 598-3316

8 2024년 추석맞이 효도 한마당 잔치

- 일시 : 9월 15일(일) 오전 11:30 - 오후 2시
-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른들(안나회, 하상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정성껏 효도 한마당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푸짐한 선물과 장기자랑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행사 후 셔틀버스는 오후 2시에 출발)

9 추석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9월 17일(화) 오후 7:30
- 한가위를 맞아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조상, 부모, 친척, 친지들을 기억하는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합동 위령미사 예물을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10 파티마 성모님 개인 가정 순례 접수(선착순)

- 순례 기간 : 9월 8일(일) - 10월 13일(일)까지 (일주일씩 총 다섯 가정에 머무심)
- 신청 :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 이종석 루카 (703) 254-7963

11 하상 성인학교 2024년 가을 학기 안내

- 일정 : 9월 10일(화) - 12월 6일(금)
- 등록 : 9월 1일(일), 9월 8일(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등록금 : \$60 (점심 없음)
- 등록 안내 및 신청서 : 성당 입구 주보대에 있음
- 과목 : 생활 영어, 수지 요법, 라인댄스, 수목화, 민화, 합창교실, 색소폰(Saxophone), 장구교실, 기타(Guitar)
- 문의 : 김 올리어나 교장 (703) 217-2775

12 2024 - 2025년 CCD/CYO 등록 안내

- 대상 : 유치부(K) - 12th grade
- 등록 : 하상관 교무실
- 문의 : CCD 임형준 이레네오 (703) 624-8196
CYO 구아름 데레사 (703) 599-8869

13 CYO 오케스트라/성가대 새 단원 모집

- 학생 미사에서 함께 노래하고 연주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대상 : 4학년 - 12학년(노래) / 7학년 - 12학년(관현악)
- 오디션 : 9월 22일(일) 오후 4:15,
하상관 지하 #7(음악 연습실)
- 자유곡 1곡, scale, sight reading(시창)
- 문의 : 조 스테파니아 (703)725-3167



**배하정 다니엘 신부님
부임 미사**

제10대 주임신부님으로 부임하시는 배하정 다니엘 신부님을 환영하며 신부님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 환영 미사 | 9월 1일(일) 오전 10시 미사



교중미사 예물봉헌

09/01 이번 주	페어팩스 2-2구역
09/08 다음 주	페어팩스 3-1,2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8월 25일 (연중 제21주일)

봉헌금	\$ 8,934.15
교무금	\$ 4,410.00
교무금(신용카드)	\$ 4,150.00
감사 헌금	\$ 160.00
온라인 봉헌	\$ 2,400.00
합계	\$ 20,054.15

버지니아성 정바로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2024년 9월 5일(목) 오후 5:00 - 6:00
2024년 9월 6일(금) 저녁 8:00 - 9:00
2024년 9월 8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김태진 베네딕토 신부님 이임 인터뷰
3. 교회미술 2천년 : 르네상스 상인과 미술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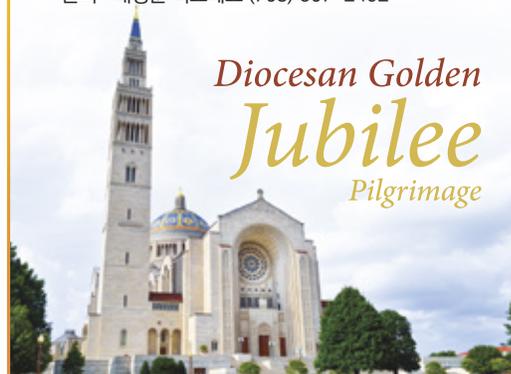
REMEMBER | REJOICE | RENEW



알링턴교구 황금희년 순례

- 알링턴 교구 설정 50주년 황금희년 순례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10월 5일(토) 9:30AM - 2:30PM
- 장소 : National Shrine 성당 (D.C)
- 참가 인원 : 선착순 80명
- 참가비 : \$10/1인당 (버스와 점심 식사가 제공)
- 참가신청 : 9월 15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 (참가비와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배성훈 디모테오 (703) 507-2492

Diocesan Golden Jubilee Pilgrimage



www.arlingtondiocese.org/golden-jubilee-pilgrimage/